

## ‘기(氣)’ 현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 현 주\*

### I. 서 론

기(氣)의 개념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생활적, 철학적, 종교적, 한의학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각적이고도 통합적이며 복잡한 개념으로 우주, 자연 및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체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김설자, 1997).

간호학은 동양의학의 철학적 기반을 가지며(김완희, 1994), 혼히 氣와 간호학의 주요개념인 인간, 환경, 그리고 건강은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김설자, 1995). 氣를 기본적 개념으로 통용하고 있는 동양의학의 종체적인 면은 간호학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위치한 시공간 내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 기(氣)개념을 정립하고, 학문적 체계 내에서 정합성(整合性)을 위한 노력을 통해 수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간에는 정신작용과 에너지의 형태로 기(氣)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기(氣)에 대한 인식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달리할 때 건강과 간호에 대한 시각을 좀 더 효과적이며 우리 문화에 알맞은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대상자와 간호사의 기(氣)에 대한 인식정도, 간호를 할 때 맑고 좋은, 건강한 기운을 담아 대상자에게 간호수행을 하는 것, 좋은 기(氣)를 가진 간호사

자신이 대상자의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호과학이 타학문과 구별되는 특징은 인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인간의 지식형태라는 것이며, 그 현상을 이해하고 간호학 공동체의 공통된 의견일치를 위하여 철학적 이해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문이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느냐는 그 학문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과 현상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에 적용할 기(氣)의 현상이 어떤 철학적 기반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과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측면은 인간 실체의 본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며(Kim, 1993), 철학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는, Bevis(1982)가 말한 바와 같이 ‘철학이란 인간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사색과 신념의 구조’이다(Uys et al., 1994). 이렇듯 간호학은 인간과 인간의 반응에 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므로 인간본성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필요하다.

해석학적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해는 학자의 범위가 교차할 때 또는 연구의 대상에 대한 문맥, 견해의 통합으로 범위를 이룰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氣)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철학적 사조에 대하여, 한국적 세계관과 서양의 세계관을 통합하는 지식 범위의 융합(the fusion of horizons : 지평의 융합)으로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가톨릭 삼지대학 간호과

## II. 氣의 철학적 배경

### 1. 기(氣)의 정의

'기(氣)'란 구름, 또는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는 기체의 유동을 본뜬 상형(象形)문자로 이루어졌다(박대식, 1995). 이러한 운기(雲氣)는 기의 원시적 의미이다(백숙희, 1997). 기는 발생이후 점점 그 담긴 뜻이 넓어져갔고, 후대에 와서 대단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기의 발전은 주로 네 방면에서 드러나는데, 첫째는 만물을 형성하는 기, 둘째는 사람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 셋째, 사람의 혈기를 나타내는 의미, 넷째, 사람의 도덕정신과 해, 달, 별, 하늘, 땅, 산과 같은 자연기상을 나타내는 쪽으로 확대되었다. 기자(氣字)의 원시적 의미가 하늘, 땅, 사람, 사물이라는 넓은 측면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자연, 사회, 사람과 그 도덕정신이 통일된 물질적 기초를 얻게 되었다(백숙희, 1997).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995)에 의하면, 기(氣)는 '옛날 중국에서 15일을 일기(一期)로 하는 명칭',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 '힘', '정신활동, 정신력', '기운', '느낌, 분위기'로 설명되어 있다. 이승녕의 국어중사전(1988)에서 기(氣)는 공기, 숨, 기운, 정신, 자연현상, 느낌의 의미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

기(氣)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어간, 어미 또는 서술적으로 확대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반영하는 '기운, 생기'; 자연상태를 표현하는 '기후, 한기, 습기'; 감정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기분, 화기애애'; 인간이나 사물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끈기, 찰기'; 질병을 포함한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부기, 기흉' 등과 같이 언어에서 '기'라는 말이 빠지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설자, 1997). 따라서 기(氣)의 표현들은 언어와 사회의 인식에 편재하여 기(氣)의 몇몇 인식이 행동, 신념, 관습을 통해 조사, 분석될 수 있다(김광호, 1996).

기(氣)란 모든 우주공간에 들어 있으며, 생리활동을 영위케 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이다(신경림, 1998). 기(氣)는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영양물질이며(양경희외, 1994), 개인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조절하며 활력을 주는 생명력의 근원으로 설명되어져 왔다(김설자, 1995). 기(氣)는 작용이며 활동(activity)으로서, 전체적, 형태적, 기능적으로 통일되는 통합작용을 하며, 발동성을 가지는데 이는 능동성과 자율성, 주체성과 자주성이 포함된다(오모다카, 1991). 동

양의학에서는 기(氣)의 근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원기(原氣-근원적인 기, 선천적인 기), 곡기(穀氣-곡식의 기), 공기(空氣-자연대기의 기)이다. 이 세가지 형태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기(正氣), 진기(真氣)를 생산한다. 기(氣)는 기능적으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기(氣)는 인체 내에서 운동의 원동력, 몸을 보호, 대사활동의 원동력, 신체성분과 장부를 유지,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주요한 기능을 갖는다(테드, 1983).

기(氣)의 사상개념은 전체로서는 인간과 자연을 성립시키고 있는 생명, 물질의 동적(動的) 에너지이며(전경진, 1987), 기(氣)의 철학은 모든 사물의 근원. 근거에 대한 판념론, 유물론, 존재론, 인식론적인 기반을 가진다. 기(氣)에 관계한 기초이론인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은 중국을 중심으로 생겨난 고대철학사상으로, 이것으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해석하며 의학의 영역까지 깊이 응용되었다. 퇴계는 주장하기를 우주는 절대궁극(太極)으로부터 기원한다고 한다. 이 절대궁극은 움직임(動)을 통해 양기를 그리고 정적(停; static)을 통해 음기를 산출해 낸다. 이 정적이 한계에 달하면 이것은 다시 움직임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양기와 음기는 상호작용, 상호의존, 상호변형에 의해 창조를 만들어낸다(김설자, 1995).

이상의 사전과 문헌을 통해서 본 기(氣)의 개념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에 대한 문헌고찰을 종합하여 보면, 기(氣)란 '인간, 자연,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구성하고 활동력을 가져 호흡, 생명, 기운, 감정, 정신 등 인간의 신체·정신적인 모든 기능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기(氣)의 개념적 속성으로서, 첫째, 선천기·후천기·청기의 우주·자연·인간을 구성하는 근원 및 본질, 즉 에너지이며, 둘째, 유형·무형으로 분산되는 변화과정과 승(昇)·강(降)·출(出)·입(入)의 운동변화를 통한 작용이며 활동이고 경락을 통하여 순환하여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물질로 생명력, 활동력, 역동성을 가지며, 셋째, 우주의 기(氣)와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기(氣)는 음양오행론에 따라 몸·마음·정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달(transmission)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건강이 기(氣)의 조화로운 균형과 충분한 공급으로부터 나오며, 기(氣)의 흐름이 강하고 막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 건강이 균형이 잡힌다고

믿는다. 따라서, 기(氣)와 건강에 대한 이해는 간호사들과 다른 의료전문인들이 건강이라는 전체적 개념의 맥락 안에서 한국인들의 필요에 적절히 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한국인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한 간호중재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운 건강유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김설자, 1995). 김설자(1998)는 氣의 조작적 정의로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조절하고, 활력을 주는 생명력과 활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기(氣)에 대한 인식(perception)은 한국문화에 알맞는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또한 대상자들이 그러한 간호중재에 대해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반응을하도록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氣에 대한 한국철학

동양에서 고대의 전통적이며 문화적인 氣 개념은 중국의 세계관과 철학에 본질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 세계관은 대우주-소우주 원리에 기초하는데, 우주는 대우주적 물체로 형이상학적으로(metaphysically), 인간은 소우주적 물체로 존재론적으로(ontologically) 이해되는 동양의 기본적인 존재론을 형성한다. 중국철학에 내재하는 기본가정은 氣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통해, 또한 우주를 통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氣는 인간과 우주의 자연주의적, 전체적 세계관으로부터 생겨났다(김설자, 1995).

도교와 성리학은 한국에서 기의 개념화에 영향을 미쳤다. 도교는 중국인들이 자연과 생명의 기본 특성들을 이해하고자 추구해 온 철학적·종교적 입장이다. 도교의 핵심원리는 조화와 균형이며 변화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균형과 조화중의 한 결과가 개인의 건강이다. 개인은 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적용을 추구하며 이는 자연법칙의 질서를 따르고 자발적으로 행함으로써 성취된다. 또한 이러한 적용은 인간마음의 자연적인 양상인 본능적인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원리를 연구하며 인간의 진실성과 자연법칙을 존중한다. 성리학은 이조시대 16세기에 중국 주희의 철학에 뿌리를 둔 ‘이기(理氣)’와 같은 새로운 철학을 한국에서 산출해냈고 발전시켰다(가톨릭철학교재편찬위원회, 1998).

한국의 두 학자, 율곡과 퇴계는 한국의 성리학을 인간과 우주의 본성에 있어서 기(氣) 일원론과 이기(理氣) 이원론의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존재의 질료적 근거인

氣와 원리적 근원인 理의 두 가지 형식을 갖춘 이기론(理氣論)이며, 여기에서 理는 ‘형이상학적’이고 氣는 ‘형이하학적’으로 해석된다. 理가 氣보다 근본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주리론(主理論), 氣가 理보다 근본적이라고 보는 주기론(主氣論)으로 구분된다(가톨릭철학 교재편찬위원회, 1994).

율곡 이이(1536-1584)는 氣에 대한 일원론적 견해를 가지고 氣를 인간의 본성으로 강조했다. 그는 천지만물이 氣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했다. 氣는 개인과 우주의 물질적이며, 생명에 활력을 주는 형이하학적 본체이다. 율곡은 氣를 생물과 무생물의 움직임과 활동의 역학법칙으로 생각했다(김설자, 1995). 그는 理와 氣는 선후차가 없으며 서로 시초와 종말도 없이 다같이 세계의 궁극적 시초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사물현상들은 理. 氣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연계의 발생, 형성문제를 논할 때는 ‘천지에 氣 아닌 것이 없다’고 하면서 氣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理는 허수아비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러나 관념론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어 理는 氣보다 부득불 먼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은 취하기도 한다(주홍성외, 1996).

한편, 퇴계 이황(1501-1570)은 성리학적 유교관념론자이며 철저한 객관관념론을 주장하였다. 理를 인간의 제일의 본성으로, 氣를 제이의 본성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을 가졌다. 그는 모든 자연은 理와 氣로 이루어져 있다고 서술했다. 理는 지배원리로서 우주의 형이상학적 형성 또는 구성법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理의 중요성은 ‘인간의 에너지 또는 감정(즉, 氣)’의 활동을 위한 지배원리로서 강조했다(김설자, 1995). 理·氣의 관계에서, 퇴계는 ‘理가 움직이면 氣가 따라서 생겨 나온다’는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는다(理가 움직이면 氣는 理를 따라서 생겨 나오고 氣가 움직이면 理는 氣를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다). 理와 氣는 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결코 떼 수 없는 관계이다. 퇴계의 철학은 마음의 본성을 ‘심성론’으로 규명하였는데, 여기에서 인( 혹은 : 懈隱), 의(수오 : 羞惡), 예(사양 : 辭讓), 지(시비 : 是非)의 네 가지(사단 : 四端)가 출발이며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恐),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 등의 일곱 가지 감정(칠정 : 七情)이 理·氣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단은 理가 발(發)한 것이고 칠정은 氣가 발(發)한 것이라고 하였다(정순목, 1992). 퇴계는 理와 氣를 개인의 마음, 인지, 인식, 감정에 적용하려 하였다. 퇴계철학의 핵심은 바로 정신세계를 물질세계 위에 두려는데 있으며

윤리·도덕관, 사회·정치관에 유교이념으로 반영되어 조선왕조의 봉건적인 중앙집권제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퇴계는 한국에서 인간본성의 철학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Kim, 1983; 주홍성, 1996).

화담 서경덕(1489-1546)은 주자 성리학의 관념론적 철학을 반대한 16세기의 대표적인 氣철학자이다. 화담은 형이상의 세계와 형이하의 세계를 일관된 논리로 파악하여 현상적 세계의 이원적 대립을 모순없이 조화시켜 '氣일원론'적 철학을 확립하였다(윤보식, 1990).

화담은 모든 사물현상들의 발생, 발전, 소멸과정을 氣로써 설명하였고 우주공간은 먼지와 같은 미세한 물질적인 입자(氣)로 가득 차 있으며 이 입자에 고유한 두 측면인 음기와 양기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하늘, 땅, 사람과 기타 모든 사물들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氣는 창조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래 시초도 없고 종말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면서 사물현상들을 낳고 또 낳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성리학자들이 최고 실재로 보는 理는 사물의 운동과정에서 발현되는 합법칙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물질적인 氣가 있은 다음에 존재하게 되는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당시 이조봉건사회의 통치제도와 질서에 따른 지나친 압박과 착취에 대한 비판을 가하였다(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8).

혜강 최한기(1803-1877)는 조선후기 실학파의 마지막 유학자로서 실학적인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그 당시 도입된 서구과학의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갔다. 혜강은 새로운 사상체계를 "기학(氣學)"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통적 氣철학에 서구 과학사상을 수용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혜강의 氣철학 체계는 서구과학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과, 만물을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존재로 보는 철학의 전혀 다른 사상체계가 융합됨으로써 기존의 어느 사상체계와도 구별되는 매우 독창적인 사상으로 형성된 것이다(佐佐充昭, 1992).

혜강은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우주를 氣의 통일체로 보는 氣일원론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 학문을 종합하려고 하였다. 혜강사상 안에는 전체론적인 종합의 방법론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체의 역동성을 중시하는 방법론이 포함된다. 즉, 크게는 천지에서부터 인간과 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공통의 氣로 이루어졌고 氣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와 인간과 만물이 궁극적인 氣에 근거한 통일성과 통일성을 지

니고 있다는 氣 일원론적인 전제를 기초로 혜강철학은 체계화되어 있다(佐佐充昭, 1992).

혜강의 氣 개념은 전통적인 氣철학의 기본적인 사유를 계승하면서 서구의 과학지식을 적극적으로 담아 氣를 인간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형질을 갖는 물질적인 실재로 보았다. 혜강은 우주전체의 근원적인 실재로서 氣를 파악하였으나 氣 개념은 경험과학적 지식을 수용하는 매개개념의 역할을 하여, 혜강이 말하는 氣란 공기 대기권의 대기를 의미하기도 하며, 열 자체의 현상도 氣의 본질로 생각하고, 조석(潮汐; 조수)이 생기는 것이 달과 지구가 서로 마찰하는 氣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여 물체간의 인력도 氣의 마찰이라는 형식으로 파악되고, 전기·자기현상도 氣라고 파악하였다(최한기, 1994).

혜강의 인식론 체계는 서구과학의 지식을 통해 인간의 육체가 복잡한 구조를 지니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고 이해하고, 인식과정 전체가 모두 氣의 관점에서 일원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理는 반드시 유형질인 氣를 통해서 인식된다고 하였다.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지는 지각, 기억도 모두 氣에 의해 생기고, 추측, 검증의 활동도 모두 氣의 주체적 노력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기존 대부분의 서양 인식론의 경우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이원적 구조 속에서 접근할 뿐이며, 인식 주체인 의식과 인식작용을 가능케 하는 육체와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을 철학적인 형식으로 체계화시키는 것과 더불어 인식작용의 성립근거를 신체활동과 관계지으면서 고찰하려고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佐佐充昭, 1992).

혜강은 모든 민족, 국가가 그 고유한 독자성을 확보하면서도 인류전체가 하나로 통일되며 사회적인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모든 개인이 자아실현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그의 氣철학 체계 전체의 사상적 열매이며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최한기, 1994; 佐佐充昭, 1992).

이와 같이 氣에 대한 한국철학은 도교와 성리학에서 비롯되어 개념화되었으며 균형과 조화의 핵심원리를 가지며 그 결과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성리학은 중국의 주희철학에 뿌리를 둔 이기론(理氣論)의 한국철학을 산출하여 율곡의 주기론(主氣論), 퇴계의 주리론(主理論), 화담의 기일원론, 혜강의 전통적 氣철학에 서구과학사상을 수용한 기학(氣學)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서 볼 때 氣개념은 한국적 세계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형이상학 및 형이하학적인 관념론, 유물론, 존재론

및 인식론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철학의 역사적인 배경은 간호학에 적용할 氣에 대한 근거와 氣의 개념화 및 이론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3. 氣와 관련된 서양철학

氣와 관련된 관념론, 유물론, 존재론 및 인식론의 서양 철학에 대하여 동양철학과 비교 검토하였는데 氣현상을 설명하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은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고, 동양철학이 서양철학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동양철학의 폭이 더 넓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학자들을 대체로 理와 氣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① 理를 이치(理致)라고 보고 氣를 기운(氣運)이라고 보는 해석, ② 理를 이성(理性)이라고 보고 氣를 감성(感性)이라고 보는 해석, ③ 理를 형상(形相)이라고 보고 氣를 질료(質料)라고 보는 해석, ④ 理를 형식(型式 : form)이라고 보고 氣를 질료(質料)라고 보는 해석, ⑤ 理를 이데아(idea)라고 보고 氣를 물질(物質)이라고 보는 해석 등이다(전두하, 1978).

존재론적 측면에서, 理와 氣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 혹은 헤겔의 주관과 실체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대체로 理는 '관념적인 것'을 총화한 명칭이며, 氣는 '실재적인 것'을 총화한 명칭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理와 氣란 양자가 모두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理란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늘의 이치인 天理이며, 이것이 그대로 사물에도 있다. 왜냐하면 본래 동양철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사상이 있고 이것이 이기론(理氣論)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객관마저 포함하는 넓은 뜻을 가진 주관인 理는 헤겔의 주관과 종류가 같다고 할 수 있다. 理와 氣가 헤겔철학에 있어서의 주관과 실체, 즉 無→본질→주관과 有→현상→객관에 대비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면,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질료, 하이데거의 실재와도 관련시킬 수 있는 개념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헤겔→하이데거의 맥락에 있는 '관념적(이데아적)인 것'과 '실재적(형태적)인 것'이 理氣論에서 이론바 '이치적인 것'과 '기운적인 것'에 해당하는 개념일 것이다(전두하, 1978).

동양의 세계관으로부터 유래된 철학인 이기론(理氣論)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서양철학과 대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퇴계의 이기론(理氣論)은 객관관념론이라 할 수 있는데, 관념론(idealism)이란 유물론과 대립되는 철학의 근본경향으로 궁극적으로 '의식'이 물질에 대해 일차적이며 규정적인 것이라고 답하는 세계관을 지

칭한다(한국철학사상회, 1994). 관념론은 일반적으로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식 등의 정신적인 것이 물질이나 자연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이다. 관념론은 독일의 칸트, 피히테, 셀링, 헤겔에 이른다. 객관적 관념론은 의식을 역사적, 사회적 토대로부터 분리시켜 하나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로 전환시킴으로써 물질적 세계의 상위를 차지하는 창조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로 삼는다(가톨릭철학 교재편찬위원회, 1998).

관념은 플라톤(B.C. 428-B.C. 348)의 이데아 세계와 비슷한데, 이데아는 존재론에서 뿐만 아니라 인식론에서도 일차적인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데아는 실체적 본질이며 전제(hypothesis)로서 논리적 도대일 뿐 아니라 실제적 원인이다. 인식론에서도 이데아를 기초로 삼는다. 지식은 개념으로 실현되며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은 통일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앎이기 때문에 개념적 인식의 대상은 감각적인 것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이다(한국철학사상회, 1994). 플라톤은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와 감각적 대상의 세계를 가정하였다. 현실적인 세계는 개별적인 것의 세계이고 이상적 존재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더 자체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며 본질, 이상적·절대적 가치를 뜻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최고의 이데아는 善의 이데아이다. 선의 이데아는 만물의 목적인 동시에 만물을 있게 하는 제일 원인이 되며 참다운 지식의 기초이다. 플라톤은 세계의 태초에 이데아가 있었다고 본다.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 理는 플라톤의 이데아(idea)나 형상(form)과 비슷하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이유 혹은 존재의 본질이나 원리를 가지는데 이를 理라고 본다. 플라톤은 이 세계의 무수한 사물들은 이데아의 모사(copies)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고 플라톤의 이데아와 동양철학의 理는 대상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이전에도 존재한 존재론적 실체이다.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와 태극은 아주 흡사한데 선의 이데아는 이데아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이데아이며, 태극은 존재들의 존재이며 원리들의 원리이다(김하태, 1993 : 가톨릭교재편찬위원회, 1998). 또한, 동양철학의 理는 서양철학의 로고스(logos)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김설자, 1995), 로고스는 형상(에이도스 : form)을 말하며 로고스가 본질인식과 가치인식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고 모든 인식은 로고스를 통해서 생긴다(전두하, 1978).

理의 형이상학적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B.C. 384-

B.C. 322)의 <형이상학(metaphysica)>에서 나타나는데, 형이상학이란 존재일반, 존재로서의 존재 혹은 존재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는 개별적인 사물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개별적인 사물인 실체는 ‘질료’와 ‘형상’으로 나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理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형상개념은 사물의 원리, 정의, 구성요소, 구조, 기능으로 보았다. 형상은 질료 밖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질료는 항상 형상화되어 있다. 형상은 질료와 결합해서만 존재한다는 ‘질료형상론’인데, 이는 동양철학의 理氣論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전두하(1978)는 주장하기를 동양적 세계관에서의 理와 氣는 실체적 본질이 아닌 ‘비실체(非實體)로서의 실재(實在)’로서 ‘어디에도 있으며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유물론적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형상과 질료의 분리불가능성에서 나타나며 질료가 형상으로 현실화되는 내재적인 원리가 만물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모든 사물의 재일원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스스로 존재·총족하는 순수한 형상의 존재인데(한국철학사상회, 1994), 理와 氣 또한 불가분성(inseparability)을 가지며, 理는 사물이 만들어진 근원, 氣는 사물이 만들어지는 수단이라고 본다(김하태, 1993). 동양철학의 理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가정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려 한 주관적 관념론자인 칸트(1724~1804)는 선협적 관념론, 비판적 관념론을 완성시켰다. 대상적 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으로 ‘순수이성에 대한 선협적 반성’을 주장하여 전(全) 철학의 기초가 되었다(철학사상회, 1994). 칸트는 지식은 ‘선협’적이어서 필연성을 가지면서도 경험적 내용을 반드시 가짐으로써(‘종합’이라는 용어로 설명됨)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고 하여, 인간은 ‘선협적 종합판단’이라는 인식능력을 가진다고 한다(이현구외, 1997). 도교와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조화로운 적응을 추구하며, 이는 인간 마음의 자연적인 양상인 ‘본능적인 지혜’를 신뢰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가톨릭철학교재편찬위원회, 1998) 동양철학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본다.

헤겔(1770~1831)은 객관적 관념론의 대표적 철학자이다. 헤겔은 감각적인 것-대상적인 것만을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형이상학적 유물론의 물질 개념으로부터 무비판적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절대이념, 세계정신과 같은 정신적 원리가 자연세계와 역사세계를 관통하

며 자연과 사회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다(한국철학사상회, 1994). 세계정신은 삼라만상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이며 처음에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여 있는 순수한 논리적 존재이다. 세계정신은 정신과 자연, 주관과 객관, 사유와 존재를 포괄하는 절대존재이다. 이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며 스스로 부귀하고 스스로 의식한다(가톨릭철학 교재편찬위원회, 1998). 또한 헤겔은 사유의 변증법과 실제세계의 변증법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객관적 관념론을 발달시킴으로써 변증법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형식들을 완성하는데 공헌했다(한국철학사상회, 1994). 변증법은 헤겔철학의 핵심을 이룬다. 헤겔의 변증법은 인식발전의 논리이며 존재의 발전법칙이다. 변증법을 통하여 세계정신이 발전하는 것이다. 변증법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대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헤겔은 정(正)-반(反)-합(合)의 단계를 거치는 발전이라고 설명한다. 이 발전은 나선운동과 같이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복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삼라만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법칙이 된다(가톨릭철학 교재편찬위원회, 1998). 헤겔의 관념론에 따르면, 세계는 인식 가능하다. 그는 현실의 본질을 사유로 파악하며 따라서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존재, 즉 사유의 동일성을 공언한다. 또한 경험으로 출발하는 것이 철학의 중대하고 유익한 원리라고 주장했으며 지식은 사물의 본질에 관한 인식을 얻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다. 헤겔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이른바 관념론이 유물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하이데거(1889~1976)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며 신 칸트주의였으며 야스퍼스의 실존철학, 흑설의 현상학, 술라이어마허와 달타이의 해석학적인 철학적 입장장을 가진다. 실존주의란 개념적으로 추론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감지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의 실존이란 말은 인간의 현실적 존재라는 말을 줄인 말이며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서만 실존이라고 부르며 존재는 본질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로 분류된다(가톨릭철학 교재편찬위원회, 1998) 하이데거는 1927년 <존재와 시간>이라는 저서에서 표현된 기초존재론의 주관적 관념론적인 관점이 후기에는 객관적 관념론적인 존재철학 즉, 신비적인 존재철학으로 전환된다. 존재자란 자신의 환경세계와 관계를 맷고 있으며 존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유일하게 전술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자를 말한다. 세계내의 유일한 존재자는 바로 인간적 현존재이며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러한 존재와 존재관계를 맷고 있

다. 인간적 현존재는 하이데거 철학의 중심개념이다(전두하, 1978). 하이데거 철학은 주관주의적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관념론은 존재이해의 전제조건이 존재일반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주관은 객관의 '기초'가 된다. 칸트, 테카르트, 훗설과는 달리 하이데거에게 중요한 것은 주관과 선형적, 합리적 사유구조가 아니라 과학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일상적이며 일회적인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다. 하이데거는 초인간적인 존재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인간적 현존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철학적 형이상학의 전통적 언어로는 존재가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이로써 존재를 현실적으로 개시한다고 하였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항상 동시에 세계내 존재로 설명함으로써 유물론과 관념론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철학사상연구회, 1994).

더불어, 특이하게도 중세 독일 철학자이며 사제였던 니콜라우스 쿠사누스(1401~1464)는 스콜라 학파와 대립되는 우주론적이고 존재론적인 학설을 펼쳤는데, 인간은 소우주라는 해석을 제시하여 인간은 수동적이고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소우주인 인간 속에 대우주가 축소되어 있으며 인간은 존재전체에 있어서 명백한 형이상학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여(철학사상연구회, 1994) 동양의 기본적인 세계관, 존재론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氣란, 인간, 자연,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구성하고 활동력을 가진 호흡, 생명, 기운, 감정, 정신 등 인간의 신체·정신적인 모든 기능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氣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충분히 공급되며 그 흐름이 강하고 막히지 않을 때 인간은 건강을 이룰 수 있다. 氣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사조는 인간이 가진 가치와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氣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서양철학적 고찰을 정리하여 보면, 플라톤은 인간의 인식대상이 '善의 이데아'라고 하였는데, 선의 이데아란 만물의 목적인 동시에 만물을 있게 하는 제일 원인이며 참다운 지식의 기초이다. 이 선의 이데아는 동양철학의 이기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개념'을 사물의 원리, 정의, 구성요소, 구조, 기능으로 보는 실체적 본질로서 설명하여, 동양의 이기론이 비실체로서의 실재로서 인식되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철학인 것으로 생각된다.

칸트는 '선험적 관념론'으로서 인간의 인식능력을 설명하였고, 헤겔은 '세계정신'이 자연, 사회속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세계정신은 삼라만상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이며 처음에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여 있는 순수한 논리적 존재이며 정신과 자연, 주관과 객관, 사유와 존재를 포괄하는 절대존재로서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며 스스로 복귀하고 스스로 의식한다. 이 세계정신은 변증법을 통해 발전한다. 이 또한 동양철학의 이기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는 본질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로 분류하는데 이 본질적 존재가 실존(인간적 현존재)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 본질적 존재가 동양철학의 이기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는 동양의 기본적인 세계관 및 존재론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두 이념을 논리적으로 비교하려면 '논증의 동일세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김하태, 1993), 서양철학에서의 이기론(理氣論)을 살펴볼 때, 한국철학의 이기론(理氣論)은 주자의 이기론(理氣論)과 동일하며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개념, 헤겔의 세계정신, 하이데거의 존재와 니콜라우스 쿠사누스의 우주론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 4. 氣와 간호와의 관련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본주의 과학이며, 경험적 과학으로서 명백한 개념들을 필요로 하며, 경험적 지식의 축적에 따라 이론적 자료가 더욱 분명해지고 개념간의 상호연관성에 의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Rogers, 1990).

간호개념 모형의 범주 중 하나인 유기체적 관점은 총체주의(holism)와 팽창주의(expansionism)로 세계를 보며, 전체에 초점을 두고 유기체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질적변화를 추구한다(이소우외, 1997).

건강에 대한 사고를 정체되지 않은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건강을 균형과 조화로 개념화하는 간호이론가들처럼, 氣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한의학에서 강조하는 건강관의 중심개념인 균형과 조화로서, 간호개념과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의학의 인간관은 인간을 각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개별성과 독특성으로 인정하는 간호학의 동시성 패러다임에 입각한 Rogers와 Watson의 인간관과 일치하며 자연현상을 대우주로, 인간을

소우주로 생각하는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성을 강조한 환경과 인간과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그리고 건강을 균형과 조화개념으로 설명하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간호학적 사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신혜숙, 1994).

## 5. 氣와 관련된 서양간호학 이론

Rogers(1990)는 인간발달의 원리를 도출해내기 위해 4가지 에너지장 개념, 즉 개방성(openness), 형태와 조직(pattern & organization), 범차원성(pandimentality) 등을 사용하였다. 에너지장(energy fields)은 무한하며 인간과 환경은 에너지장이며 인간장의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하였다. Rogers에 따르면, 일원적 인간(unitary human being)은 동종역학적(homeodynamics) 존재이고 무한히 개방되어 있는 인간장과 환경장 사이에는 동종역학적 원리인, 상호작용의 원리, 공명의 원리, 나선의 원리가 적용되어 형태와 조직이 특징 지워진다(김수지, 1987). Rogers는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며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매우 주체적이거나 환경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다. 에너지 개념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교환의 실질적 요소로서 개인마다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인간장과 환경장간의 에너지 교환은 삶의 전개과정에 있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시적 현상이다(최남희, 1991). 이런 관점은 氣의 역동적 본성 및 동양적 관점의 균형·조화의 본성과 일치한다. Rogers는 건강이란 인간과 환경 에너지장의 상호, 동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특성들이며 행위이고, 사람들의 유전은 발전과정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 김(1995)은 건강이란 균형과 조화된 氣 정도의 상대적이고도 역동적 상태 혹은 과정이라고 논증했다. 또한 Rogers는 미래지향적 건강의 정의에 초점을 둔 반면, 김은 현재와 미래지향적 건강의 정의를 고려했다고 본다.

또한 일원적 인간(unitary human being)과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어려운 철학적 근본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Rogers가 말한 공간, 시간, 인과성, 진화 그리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것들은 형이상학적으로 밀접하고 심오한 관계가 유지된다. Rogerian 과학의 역사적 전망을 살펴보면, 1950년 초에 존홉킨스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적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고 게다가 과학철학에서 비슷한 역할을 가지는 양자론의 영향

도 받았다. ‘새로운 물리학’의 실증주의와 생물학에서의 장이론과 체계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박사과정 중이던 Rogers에게 이러한 과학철학적 혁명들은 간호학에 대한 그녀 자신의 독특한 견해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필연적인 영향과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일원적 인간(unitary human being)과학에서 이용된 많은 용어들이 위에서 영향을 받은 이론에 근거를 둔다(Sarter, 1989).

양자역학의 새로운 운동법칙들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상대성이론의 새로운 견해와 더불어, 광범위한 철학적, 세계관적 귀결들을 갖는 물리학적 세계상의 혁명을 가져왔다. 새로운 세계상이 고전역학에 기초한 세계상에 비해 본질적으로 새로운 점은, 자연에는 결코 비약이 없고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이며 물질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고전역학의 형이상학적 근본원칙들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철학적 귀결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사고방식에 의해 형이상학적인 기계론적 사고방식을 극복했다는 점이다(철학사상연구회, 1994).

Watson의 인간에 대한 정의에는 실존주의와 현상학 그리고 영적신념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인간은 부분들의 합 이상으로 존재하고, 마음, 신체, 영혼이 하나로 존재하는 경험의 주체이고, 세계에 대하여 상호연결되며 조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는 내적인 조화가 회복되도록 자기지식, 자기조절, 자기치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초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의 접촉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동양의 건강관인 총체성 및 균형과 조화의 관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이소우외, 1997).

Newman(1986)은 건강을 의식의 지속적인 팽창(continual expansion of consciousness)으로 개념화하였다. 우주에 대해 종합적인 과정으로 Newman의 모델에서 운동이 중심개념이며, 인간의 의식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氣는 움직이고, 연결시키고, 교환적인 인간의 반응형태들을 포함한다. 몸과 마음, 감정, 영혼을 내포하는 氣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Newman(1986)은 또한, 인간 내에서(within human), 그리고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의 에너지 교환을 생각했다. 그녀는 건강과 질병이 역동적이고 순환적 형태와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는 인간과 환경사이에서 교환된다고 제의했다. 그녀는 에너지 형태를 융화(harmonize)하며 이 형태(pattern)들을 에너지와 관계시키는 사람의 능력을 건강이라고 정의하였다. 氣이론에서 氣는 사람과 환경사이에서 교환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서양에서 용어는 다르게 쓰였으나 환경과 인

간사이에서 에너지와 氣는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氣에 대한 한국 간호이론의 배경

간호학은 인간을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 회복시켜 삶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경감하며 생명을 보존시키는데 필요한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을 이해하고 간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삶의 방식, 사상, 자연 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우리민족만이 가진 기질, 지리, 환경과 사회형태로 타 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와 사회의 산물로써 사상이 전개되므로 전통사상 속에 담겨있는 간호를 읊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아픈 사람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프지 않은 사람은 더 건강하게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의료과 간호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유기체적인 생명관을 중시하는 대체요법을 사용해왔다. 신경림(1998)은 이러한 한국적 대체요법을 이끌어낸 한국사상과 한국적 간호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간호중재를 확인함으로서 미래간호를 제시한다. 여기서 도교적인 양생사상과 치료의학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의보감에서 제시한 유·불·선교, 음양오행, 氣이론을 한국간호사상의 틀로 보았다. 한국간호이론의 총체적인 틀은 대우주인 우주관, 소우주인 인간관으로 보았고 다시 인간관은 신체관, 생명관, 건강관, 질병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간호중재로서는 대체요법을 다룬다.

한국적 간호이론을 개발하고자 할 때, 우선 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 명확히 세워져야 하며 간호의 메타페러다임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메타페러다임을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지만 인간의 속성, 현상들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때,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탐색이 요구된다(최영희, 1998).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이론을 위한 시도로서 인간·환경·건강·간호라는 메타페러다임을 氣와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氣와 인간

간호학에서 인간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간호대상자로서의 인간의 행위, 사고, 가치 등을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최영희, 1998). 따라서, 한국인들이 가진 氣에 관한 지식, 생각, 느낌, 믿음 등의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선정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氣는 인간을 구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이며, 인간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신체의 주요한 에너지라고 하였다. 또한 氣는 사람에 따라, 몸의 상태에 따라 좋거나 나쁘고 강하고 약한 氣가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는 고유의 氣가 존재하며 흐른다고 하였다(이현주, 1997). 氣는 인간의 삶의 물질적, 정신적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종류의 인간의 氣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모습이 장소와 기능에 따라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한다(김설자, 1995). 한국인들이 氣에 대해 가지는 개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이용하여 氣 개념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화·잠재력의 긍정형', '정신·생활의 체험형', '신비의 미지형' 등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이현주, 1997).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참된 건강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람을 음양화평지인(陰陽和平之人), 진인(眞人), 지인(至人), 성인(聖人), 현인(賢人)이라고 하였다. 음양화평지인은 음양의 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전신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으며 의모나 위풍이 당당하고 온화하며 군자같은 사람이다. 진인 혹은 지인은 이상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천지기운을 자유자제로 하고 자연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으로 양생을 잘하면 영생한다고 하였다(이경혜, 1998).

음과 양의 결합이 인간의 氣를 만들어낼 때 인간은 태어나고 음, 양이 분리될 때, 즉 氣가 그 원천으로 돌아갈 때 죽는다. 평생동안 음과 양의 氣는 지속적으로 태양과 땅, 섭취된 음식, 공기, 물을 통해 공급된다고 하였다(김설자, 1995). 황제내경(홍원식, 1972)에서, "사람은 하늘로부터 氣를 받아 태어났다"라고 하며, 조선시대 최한기(1994)의 기학(氣學)적 입장은 "생(生)이란 기(氣)가 취(聚)한 것이며 사(死)는 기(氣)가 산(散)한 것이다."이며, 氣는 모든 물질적인 것과 모든 정신적인 것의 근본이라 했다. 인간은 마음과 신체, 감정과 정신으로 구성된 전체로서 소우주적 존재이다.

氣는 몸의 모든 부분에 있고 氣가 없는 부분은 없다. 氣는 구체적으로 경락(經絡)이라는 통로를 통해 흐른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통합된 氣의 상태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몸의 기관들은 상호관계를 통하여 서로의 통합을 유지해 나간다. 또한 인간의 몸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조화와 균형이 유지된다(김설자, 1995).

氣는 음식으로부터 섭취되므로 균형 잡힌 식사는 균형 있는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통

동양의학에 따르면 질병과 식이가 각각 차고 더움이 있어 질병에 따라 알맞은 식이요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암은 '뜨거운' 질병이므로 암 환자는 '차가운' 식이요법을 해야한다. 찐 야채, 탄수화물, 국물은 '차가운' 식이(음기음식)로 간주되며, 쇠고기, 튀긴 음식, 토마토, 단 음식은 '더운' 식이(양기음식)로 간주된다. 또한 다섯가지 풍미가 위로 가서 다섯 가지 상응하는 기관으로 보내진다. 신맛은 간에, 매운 맛은 폐에, 쓴맛은 심장에, 단 맛은 비장에, 짠맛은 신장에 상응한다. 이 다섯가지 풍미는 그 본래 특성으로 인하여 몸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은 구체적인 금기징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쓴맛은 뼈를 비계 하므로 뼈와 관련된 질병에서는 피해야 한다. 짠맛은 폐를 머물게 하므로 혈액질병에서는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김설자, 1997).

氣는 몸의 특정 기관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감정도 氣의 상태를 조절하므로 감정의 불균형은 구체적 내장기 관들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좌절과 분노는 간과 체장에 상응하며 홍분은 심장과 소장에 상응한다. 우울, 근심, 슬픔은 폐와 대장과 관계 있으며 두려움과 긴장은 신장과 방광에 상응한다. 또한 氣는 편안한 잠을 자는 동안 채워지므로 氣의 손실과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고 하였다(김설자, 1995).

이렇듯, 기는 식이, 감정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여 특정 식이로 인하여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성격이나 감정 등의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등은 기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질병을 가진 대상자를 돋는 방법으로 식이와 마음가짐의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가치와 행동에 영향을 준 사상으로는 불가사상, 유가사상, 도가사상, 음양오행사상, 무속사상, 단군신화, 동학사상, 기독교사상 등이며, 21세기의 새로운 간호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대상자이자 간호 수혜자인 한국인의 가치나 행동에 대한 제고가 반영된다면 미래의 간호가 바람직하면서도 예측된 결과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김문실, 1998).

## 2) 氣와 환경

대부분의 간호이론에서 인간과 간호이론에서 인간과 간호개념에 대한 정의에 치중되어 있고 환경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채 환경의 인간·건강과의 상호관련성, 중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환경이란 우주를 형성

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이며,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객체를 말한다(변영순, 1998).

로저스는 환경을 '부분들의 특성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패턴에 의해 규명되는 4차원의 에너지장'으로 정의하였다. 각 환경장은 각 인간장에 특이하며 양자는 계속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해 간다. 이 환경적 변화는 계속적, 혁신적 및 화률적으로 증대되는 다양성을 지닌다. 인간장과 환경장 사이의 상호작용은 계속적이며 동시적이다. 인간장과 같이 환경장도 또한 총체적이며 환원 및 분리불가하고 패턴에 의해 분별되어 진다(이소우외, 1997).

나이팅게일은 건강한 환경이 병으로부터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증진에 있어서 신선한 공기와 청결과 같은 환경에 중점을 두며 자연치유력을 강조하였다(나이팅게일, 1997).

예로부터 우리는 중국사상과 인도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중국사상 중 "Ch'i(氣)"는 우주의 기본구조를 이루며,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중요한 힘이며 자연은 이 필수 불가결한 힘들이 "위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섞이고 융합한 결과의 산물이다. 이를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합일 내지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양의 자연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음양오행설은 우주와 인생의 모든 현상을 음(소극성)과 양(적극성), 그리고 오행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오행의 발생순서인 木·火·土·金·水에 상호생성의 순서(相生)와 상호극복의 순서(相剋)을 가미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변영순외, 1998).

한국인들이 가진 氣에 관한 지식, 생각, 느낌, 믿음 등의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선정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氣는 우주만물의 근원이며 우주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무한한 기운,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氣는 절대적인 관계인 우주, 자연, 인간의 에너지를 모아 몸 속에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동·식물내의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못하여 경상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이현주, 1997).

동양철학에서 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며 끊임없이 자연력의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고 했다. 생명의 본질로서의 氣는 인간과 우주사이를 흐른다. 인간의 氣와 환경의 氣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인간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氣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氣는 개인의 氣와 다른 사람과 환경의 氣 사이에 상호 앞뒤로 흐른다. 인간의 氣

는 인간과 그 주위환경이 끊임없이 氣를 교환하므로 그 신체적, 생물학적 그리고 사람사이의 환경적 원천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환경이 사회상황과 자연현상 사이에서 그 수준이 변할 때, 개인의 氣 수준이 균형에 맞기 위해 변화된다. 또한 날씨 형태는 이온변화, 지구와 성운의 운동은 氣체계, 신경체계, 혈액, 내분비계에 영향을 준다. 소리도 氣의 양상으로서 말의 소리들은 氣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언어의 사용은 정신을 전달하며 건강에 창조적, 지지적, 파괴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연구자나 종사자들이 인간과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 氣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김설자, 1995).

동양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의 존하는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한국적 건강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인식한 총체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 3) 氣와 건강

간호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인간-환경의 조화를 강화하는 중재를 하는 것이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환경과 갈등 속에 있기 보다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패턴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 로저스는 건강이 '삶의 과정의 표현'이며 '인간과 환경장 사이의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특징이며 행위들'로 진술하며 건강과 질병은 전체성내에서 생의 과정에 대한 이해로서 해결되어야 하는 같은 연속체의 일부라고 하였다(이소우외, 199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98년 1월에 건강의 정의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뿐만 아니라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삽입함으로써 앞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체요법의 사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될 전망이다(신경림, 1998).

한국의 전통사상과 의식구조는 중국의 음양론에 기초하면서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건강, 질병, 죽음 등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개념과 관행은 이러한 철학 내지 종교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경혜, 1998). 건강은 균형잡힌 氣의 상태이며, 질병은 부조화의 한 형태로서 氣순환의 장해로 불균형한 상태를 일컫는다. 건강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요인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역동적 상태를 말하며 풍부한 양의 氣 공급과 모든 기관들의 생리학적 기능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때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질병은 氣 순환의 혼란이나 부조화로 氣의 공급이 고갈되거나 氣 흐름의 막힘,

정체, 불균형에서 초래되며 음기와 양기의 균형이 맞지 않아 원만한 조화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체의 각 기관으로 氣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김설자, 1997).

인간은 최고의 건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양생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보다는 마음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마음의 건강은 칠정(七情 : 기쁨, 성냄, 근심, 슬픔, 두려움, 놀람, 생각함)이 지나친 편승없이 적절히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이경혜, 1998).

건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중재로서 氣호흡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재생과정에 필요한 氣를 제공한다. 단전부위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자율신경들로 말미암아 호흡을 위한 초점의 중심이 된다. 호흡과 집중이 동시에 일어날 때 단전은 힘의 원천이며 氣가 가장 잘 흐르는 곳이 된다. 신경과 그에 수반되는 혈관들은 단전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서 조절되는데 이것은 몸의 기초 신진대사를 조절하도록 돋는다. 氣호흡은 장수를 돋고 氣를 보존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을 개인의 자체 방어력과 관계가 있는, 氣로서 설명하고 있다. 위기(衛氣 : defensive Ghi)는 서양의학의 면역력과 상응하는데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기에 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氣수련 분야에서는 심신(mind-body)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마음이 평온하게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자연 치유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김설자, 1997).

한국인들이 가진 氣에 관한 지식, 생각, 느낌, 믿음 등의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선정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氣는 건강을 회복, 유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기는 정신,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신을 집중하거나 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힘이며 기에 의해 인간의 정신 및 신체가 유지되고 지배받고 있으며, 기를 잘 다스리면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평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氣는 소화를 돋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몸을 유연하게 하고 가볍게 한다. 기는 안정된 정서와 심성을 가짐으로써 사물을 보다 넓고 여유롭게 볼 수 있는 마음가짐과 풍요로운 인성을 갖게 하고 건강하고 능력있는 자로 발전하여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 기는 현대인의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인 불균형(스트레스, 질병, 부족한 부분 등)을 조화롭게 극복하도록 하며

(기치료 등), 자연치유력을 키워준다(이현주, 1997).

#### 4) 氣와 간호

간호개념을 중심으로 문헌고찰한 결과, 간호는 기본적으로 지켜보고 보호하고 돋는 행위, 자연적인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환자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육구충족을 위한 과정, 개인들 간의 대인관계과정,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를 중진시키는 외적 조절기전 등 여러가지로 정의되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하영수외, 1998). 이러한 간호의 철학/이념은 간호 철학과 민간, 민속 돌봄의 철학 및 간호 예술성의 철학을 포함한다.

한국인들이 가진 氣에 관한 지식, 생각, 느낌, 믿음 등의 설문과 면담을 통하여 선정된 진술문을 살펴보면, 氣는 훈련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여기에 요가, 기공, 단전호흡, 복식호흡, 명상, 묵상, 집중, 자연과의 만남을 충실히 하는 것, 긍정적인 사고, 규칙적인 활동, 레져, 음악 등이 속한다고 하였다. 기공(氣功)이란 기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유도하여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동양 전래의 기를 다스리는 수련이며, 기공의 학이란 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 전통의학이며 질병을 물리치고 힘을 돋우는 심신단련법이다(두산대백과사전, 1996). 기공은 자기실천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양생(養生), 십생(攝生), 행기(行氣), 진기운행법(真氣運行法) 황제내경의 도인(導引)과 같은 말이며, 조심(調心), 조신(調身), 조식(調息)의 세 가지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그 단련방법이다(하야시 하지메, 1996). 이러한 氣를 이용한 간호는 동양 전래의 기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의 과제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체요법(쑥뜸, 수지침, 음양오행식이, 단전호흡, 지압 등)은 한국적 간호 이론의 틀과 일치된다. 이러한 대체요법은 간호현장 어디에서나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지역중심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센터(암환자간호, 호스피스 등)에서 간호요법(nursing therapy)화 함으로써 간호사 중심의 중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호요법은 통증완화, 신생아의 수면장애, 산후조리, 생리통, 관절염 등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체요법은 한국간호의 전통성, 역사성,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간호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신경림, 1998).

氣의 주기(cycle)를 고려하여 간호중재가 이루어진다면 간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락을 통

하여 끊임없이 흐르는 氣는 엄격하게 조절되며 氣 순환의 주기는 24시간이고 氣의 절정시간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대상자들의 氣의 상승과 저하작용은 개개인의 기상과 취침 및 낮잠시간을 적어도 일개월간 관찰하여 氣의 일일주기(daily cycle)인 氣 행동표(Ghiac-togram)를 작성하여 氣의 주기를 고려한 개인에게 적합한 개별 간호계획을 수립한다면 시간대에 따라 각 대상자의 간호 수용정도 및 효율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김설자, 1997). 그 밖에도 氣 호흡법과 음양오행식이요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광대학교 부설 생명공학연구소 氣의학분과와 대한한의학회 기공(氣功) 의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들은 氣 수련이 심리와 육체의 안정에 미치는 효과, 뇌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심리 및 뇌의 안정을 이루는 호르몬의 작용, 심장과 호흡활동의 안정효과, 산소분압의 상승,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기의학분과, 1995).

氣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氣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그것을 검증하는 유사실험 연구가 있으며, 단전호흡을 통하여 혈압하강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김남초, 1993) 라든지 단전호흡 교육을 통하여 건강상태 척도의 점수가 증가되며, 혈압, 맥박 등의 생리적 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이현주, 1990), 단전호흡 실시 후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정도가 감소하며 T림프구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안성희, 1996)가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명상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 수치료, 건강교육을 복합적으로 병행한 '백투에덴 14일 프로그램'이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하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례, 1998). 재가노인에게 기시술의 효과를 측정한 실험연구에서 기분상태의 호전과 통증의 경감효과를 가져왔다(양경희외, 1998). 기수련자의 손에서 방사되는 기를 자연살해세포와 암세포에 주어 자연살해세포의 암세포파괴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판내에서 조사한 결과, 기를 직접 자연살해세포에 주어 암세포 파괴능력을 약 1.5배 증대시켰으며, 암세포에만 기를 주었을 때도 암세포파괴율이 대조군에 비해서 1.13~1.15배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장혜숙외, 1998). 천도선법 기수련시 자연살해세포의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 활성도가 증가하여 기수련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입증하였다(허화정외, 1998). 경증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게 실시한 기공체조 프로그램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 혈중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졸, 요증

노르에피네프린과 일상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키고 최대노력 폐활량과 최대노력 호기량을 증가시켜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과 폐환기 기능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명숙, 1998). 자가건강증진을 위한 한국고유의 양생법으로 알려진 단전호흡의 심리 및 신경면역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국선도법 단전호흡 수련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 면역 증강호르몬(성장호르몬 및 유즙분비호르몬)의 분비촉진으로 인해 면역치가 증가하였고(변주나외, 1998), 단전호흡술이 노인의 기억력과 인지력 강화를 위한 한국적 문화증재 방안으로 활용가능한 것으로 고찰되었다(변주나외, 1998). 또한 단전호흡술은 IMF와 같은 위기상황에 있는 성인남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련 후 긍정적인 신체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의료비 절감효과가 끝뿐만 아니라 심신증재 방안으로 환경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인 적절할 치료법으로 사료된다(김경원외, 1998).

이는 기(氣)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氣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것이며 대부분의 연구가氣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진행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생리적 차원의 효과 입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잘 인식되어 있는氣의 개념이 간호학적으로 개념화 및 이론화되기 위해서는氣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따른 철학적 이해와氣에 관련된 각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정신의학氣개념을 어원적, 풍수사상적, 철학적, 분석심리적, 한의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氣개념을 생명에너지, 혹은 정신의학적 체계 내에서 정신에너지, 혹은 심리에너지로 정의하였으며,氣개념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은 궁극적으로 대우주인 천지와 소우주인 인간이 생명의 창조적인 과정에 동참하는 인간의 자기완성(인격의 완성)-眞人, 至人-을 의학의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박대식, 1995).

또한 대체요법을 이용한 간호증재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로, 쑥뜸을 이용하여 자궁적출술을 한 중년여성의 유통완화를 위한 효율성을 검증한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완화는 물론이고 객관적인 통증척도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신경림, 1998).

지금까지 간호의 메타페러다임인 인간·환경·건강·간호와氣를 관련지어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氣에 대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인 고찰을 해 봄으로써 결국은氣를 이용한 간호요법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

국문화에 알맞은 간호를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氣에 대한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통하여 가설을 세우고 氣개념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간호학에서의氣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I. 氣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20세기 과학철학의 2대 주류인 논리적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는 과학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주장한다. 과학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하나는 패러다임 I : received view of science이며 이는 그 동안 받아들였던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적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패러다임 II : perceived view of science로써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다(Moody, 1990). 경험주의는 과학적 지식이 감각적 경험으로만 얻어진다는 견해를 채택하여 관찰된 사실에서 일반화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찾거나 모으는 귀납적인 것으로 본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론적인 전제를 경험세계에서 관찰,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는 이미 존재하고 과학의 목표는 이를 발견하는 것이 된다. 한편 역사주의는 쿤(Kuhn) 등에 의해 논리적 실증주의 견해가 도전을 받음으로서 이론적 인식이 경험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경험세계의 수동적인 관찰자일 뿐이고 과학자가 경험세계에서 인식한 것이 이론적 구조이고 미리 전제된 이론이나 경험적 자료는 과학적 조사과정에서 상호작용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자들은 과학을 과학자들의 사회에서의 합의를 이룬 잠정적인 결론으로 보았다(Moody, 1990).

지금까지 과학의 많은 부분이 논리적 실증주의의 과학적 입장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된다. 논리적 실증주의의 과학적 입장은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과학을 생각하며 과학은 하나의 생산물(product)이며, 과학적 용어, 정의, 제안, 가설, 이론, 법칙 등을 강조하고 이론의 발견보다는 확인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다. 그 반면 역사주의는 과학을 인간행동과 사고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과학적 지식의 본질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 실제활동, 행동형태, 사고과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비논리적,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지식이 성장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간호과학은 관심현상과 대상이 물질적 개체가 아닌 인간과 그 반응으로서 인간의 개별성, 전체성, 사회·문화적 맥락의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

하는 학문적 노력에 치중하려 하고 있다.

많은 이론의 정의 중 Steven에 의해 제안된 것은 이론에는 기술, 설명, 예측하는 이점이 있고 “이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특성화하는 목적을 가진 진술”이라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론은 과학자가 관찰이나 사실을 통해 얻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으로, 이는 이론적 모델, 개념적 모델, framework, 개념들, 구조들이 된다. 이론, 연구, 실무는 지식체 구축의 삼각을 이룬다. 이론의 수준에 따라 연구설계와 분석방법이 달라지는데, 기술적 수준의 이론이나 패러다임이 존재하면 기술적인 연구 설계와 분석을 할 수 있고, 상관관계 수준의 설명적 이론이 존재하면 상관관계적 연구설계와 설명적 분석을 하며, 예측적 수준의 이론이 존재한다면 실험연구 설계와 양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Moody, 1990).

따라서, 관심현상에 대한 이론의 존재방식마다 다른 연구방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리적 실증주의 견해와 역사주의적인 견해는 현상의 인식과 미래의 예측을 위한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둘 다 반드시 필요한 사조라고 생각한다.

아직 기술적인 패러다임과 이론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氣 현상은 적합한 모든 개념들이 학문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적합한 변수들과 적합치 않은 변수들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상학(phenomenology)의 목적은 인간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명상적인 사고를 기초로 하여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상학은 사물의 현상과 외양에 대한 연구이며 그들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현상학적인 방법은 몇 개의 학파가 있는 철학인 동시에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철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흑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의 연구를 이용한다. 현상학적 전통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자신의 ‘생활세계’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연구자는 “어떤 경험을 겪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재니스외, 1997).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으로 氣 현상에 대한 설명적 이론과 예측적 이론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 氣 현상에 대한 설명적 이론과 예측적 이론이 형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氣를 이용한 동양의 전통적이고 경험적인 양생의 방법인 대체요법(alternative ther-

apy) 즉, 각종 기공(氣功)법, 氣호흡, 단전호흡, 쑥뜸, 지압법, 수지침, 음양오행식이법, 氣의 일일주기 적용 등을 이용하여 유사실험 연구설계를 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해 나간다면, 氣를 임상간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호요법(nursing therapy)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에 알맞는 이러한 독자적인 간호중재들을 통하여 간호의 전문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V. 결 론

동양의 세계관으로부터 유래된 전통적이며 문화적인 氣개념에 대하여 한국철학과 서양철학을 통하여 살펴보고 비교하여 보았다. 氣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사조는 인간이 가진 가치와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氣에 대한 한국철학은 도교와 성리학에서 비롯되어 개념화되었으며 균형과 조화의 핵심원리를 가지며 그 결과 건강을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성리학은 중국의 주희철학에 뿌리를 둔 이기론(理氣論)의 한국철학을 산출하여 윤곡의 주기론(主氣論), 퇴계의 주리론(主理論), 화담의 기일원론, 혜강의 전통적 氣철학에 서구 과학사상을 수용한 기학(氣學)으로 발전되었다. 여기서 볼 때, 氣개념은 한국적 세계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형이상학 및 형이 하학적인 관념론, 유물론, 존재론 및 인식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한국철학의 역사적인 배경은 간호학에서 적용할 氣에 대한 근거와 氣의 개념화 및 이론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인간이 氣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서양철학적 고찰을 정리하여 보면, 플라톤은 인간의 인식대상이 ‘善의 이데아’라고 하였는데, 선의 이데아란 만물의 목적인 동시에 만물을 있게 하는 제 일 원인이며 참다운 지식의 기초이다. 이 선의 이데아는 동양 철학의 이기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개념’을 사물의 원리, 정의, 구성요소, 구조, 기능으로 보는 실체적 본질로서 설명하여, 동양의 이기론이 비실체로서의 실재로서 인식되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철학인 것으로 생각된다. 칸트는 ‘선험적 관념론’으로서 인간의 인식능력을 설명하였고, 헤겔은 ‘세계정신’이 자연, 사회속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 세계정신은 삼라만상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이며 처음에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시공을 초월하여 있는 순수한 논리적 존재이며 정신과 자연, 주관과 객관, 사유와 존재를 포괄하는 절대존재로서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발전

하며 스스로 복귀하고 스스로 의식한다. 이 세계정신은 변증법을 통해 발전한다. 이 또한 동양철학의 이기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는 본질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로 분류하는데 이 본질적 존재가 실존(인간적 현존재)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 본질적 존재가 동양철학의 이기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니콜라우스 쿠사누스는 동양의 기본적인 세계관 및 존재론과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서양철학에서 理氣論을 살펴볼 때, 한국철학의 理氣論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하이데거 철학과 동등하다고 본다. 한국적 간호이론을 개발하고자 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학자의 과학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 한국문화에 적절한 간호를 위하여는 실존주의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입장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에 따른 각각 다른 인식론적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氣와 관련된 간호학적 지식을 알아내는 방법론이 어느 한가지로 고정될 수 없으며, 탐구영역과 대상에 따라 어떤 철학적 원리와 적합하게 대응되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탐구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간호 이론을 위한 시도로서 인간·환경·건강·간호라는 패러다임을 기와 관련지어 고찰해 본 결과, 간호학에서 인간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간호대상자로서의 인간의 행위, 사고, 가치 등을 탐구해야 할 것이므로, 21세기의 새로운 간호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대상자이며 간호수혜자인 한국인의 가치나 행동에 대한 제고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동양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한국적 건강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인식한총체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며 간호연구자나 종사자들이 인간과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 氣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건강은 균형 잡힌 氣의 상태이며 질병은 부조화의 한 형태로서 氣순환의 장해로 불균형한 상태를 일컫는다. 건강은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요인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역동적 상태를 말하며 풍부한 양의 氣공급과 모든 기관들의 생리학적 기능들이 순조롭게 운영될 때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질병은 氣 순환의 혼란이나 부조화로 氣의 공급이 고갈되거나 氣흐름의 막힘, 정체, 불균형에서 초래되며 음기와 양기의 균형이 맞지 않아 원만한 조화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체의 각 기관으로 氣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사상과 의식구

조에서의 氣개념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서양의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양에서 대체요법(alternative therapy)으로 명명된 우리 고유의 건강요법을 개발하고 입증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에 알맞는 방법으로 대상자들의 최적의 건강준수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氣를 이용한 간호요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와 과학적 입증을 한 선해연구들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입장에 적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의 둘째는 대상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이며 그 삶을 건강의 관점에서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간호는 대상자의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간호학은 간호대상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서양의 가치체계는 동양의 가치체계와 분명한 차이를 가지며 건강추구행위 또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최남희, 1991). 따라서, 한국인에게 널리 인식되어있는 氣개념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철학적 분석과 종합이 간호의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 간호의 연구를 원활하게 하는 기초적인 부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Kim, H. T. (1983). The difference between T'oegye and Yulgok on the doctrine of Li and Ch'i. In Y. Yu., & E. H. Phillips(Eds.), Traditional thoughts and practices in Korea, 7-22.
- Martha, E. Rogers (1990). Nursing : Science of Unitary, Irreducible, Human beings : Update 1990. Visions of Rogers' Science-Based Nursin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5-11.
- Moody, L. (1990). Advancing nursing science through research : The quest for nursing sci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5-45.
- Newman, M. A. (1986). Health as a expanding consciousness. St. Louis, MO: C.V. Mosby.
- Sarter, B. (1989). Some critical philosophical issues in the science of unitary human beings. Nursing Science Quarterly. Williams & Wilkins Co, 74-78.
- Uys L. R., & Smit J. H. (1994). Writing a philosophy of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239-244.

가톨릭 철학교재편찬위원회 (1998). 젊은이들을 위한 철학. 이문출판사.

김경원 외 (1998). 단전호흡과 건강상태 관계 연구.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김광호 (1996). 한의학적 "氣"의 응용. 제3차 간호학술 대회(1996. 2. 12-13). 경희대학교 한방간호학연구회.

김문실 (1998).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 -인간 : 간호수혜자로서의 한국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8년 학술심포지움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중심으로-".

김설자 (1995). 간호에서의 기(氣)의 의미. 간호에서의 '氣'의 이해(1995. 11. 2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혼신영석좌운영위원회.

김설자 (1997). 한국적 건강관 : 기의 전망. Sigma Theta Tau 1997년 추계 학술대회(Nursing Domain : Korean Perspectives) 자료.

김설자 (1998). 간호학 축면에서의 기의 적용(이론적 & 방법적 축면). 경북대 대학원 세미나(1998. 6. 26) 자료.

김수지 (1987). 간호이론. 수문사.

김완희 (1994). 간호의 한의학적 접근을 위한 이론과 철학(한의학적 건강관). 경희대 한방간호연구회 학술대회 보고서.

김하태 (1993). 동서철학의 만남. 종로서적.

두산동아대백과사전연구회 (199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박대식 (1995). 한의학적 정신의학 氣 개념의 이해.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숙희 (1997). 精·氣 養生法에 관한 문헌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2(1),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변영순 외 (1998).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환경-.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8년 학술심포지움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중심으로-".

변주나 외 (1998). 한국전통 건강문화로서의 단전호흡술의 심리신경면역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변주나 외 (1998). 한국전통 건강문화로서의 단전호흡술이 노인의 기억력과 인지력에 미치는 영향.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8). 조선통사(상). 도서출판 오월.

신경림 (1998). 간호학적 축면의 대체요법-한국적 간호중재. 대한간호학회 과학의 날 기념 춘계학술대회(주제 :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 I - 한국적 대체요법 - 1998. 4. 24), 대한간호학회, 32-45.

신성례 (1998). 고혈압환자를 위한 식이요법.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안성희 (1996). 단전호흡이 면역세포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의학부 논문집, 49(2).

양경희 (1998). 기시술을 통한 만성질환자의 효과연구.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양경희 외 (1994). 한방간호학. 현문사.

유명종 (1978). 퇴계에 있어서의 기 개념. 퇴계학총서, 제1부 6권(19), 퇴계학연구소, 69-78.

윤보식 (1990). 화답의 기철학에 관한 -考-본체론과 생성론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이경혜 (1998).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인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8년 학술심포지움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중심으로-".

이명숙 (1998). 기공체조가 경증 고혈압 환자의 혈압과 혈압관련 변인 및 폐환기 기능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이부영 (1978). 동양의학의 기 개념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7(1).

이소우 외 (1997). 간호이론의 이해. 수문사.

이현주 (1990). 이완술로서의 단전호흡교육의 단기효

- 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1997). 기(氣)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Q방법론 적용-. 가톨릭상지대학 논문집 제27집, 45-69.
- 이희승 (1995).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장혜숙 외 (1998). 한국의 기시술이 자연살해세포의 암파괴능에 미치는 영향.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 제니스 M. 모스, 폐기 앤 필드 저 (1997). 신경림 옮김. 질적간호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전경진 역 (1987). 氣의思想: 중국에 있어서의 자연관과 인간관의 전개. 원광대학교 출판국.
- 전두하 (1978). 이퇴계철학의 핵심. 퇴계학총서, 제1부 6권(20), 퇴계학연구소, 135-183.
- 정순목 외 편집 (1992). 퇴계선생의 편지. 한국출판사.
- 정우열 (1996). 한의학적 "氣"의 실제. 제3차 간호학술대회(1996. 2. 12-13). 경희대학교 한방간호학연구회.
- 佐佐充昭 (1992).  혜강 최한기의 기철학-서양철학과의 접촉을 통해 변용된 기철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종교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주홍성 외 저. 김문용 외 옮김 (1996). 한국철학사상사. 예문서원, 235-252.
- 최남희 (1991).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 (1998).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한국적 간호이론 정립 : 간호메타파라다임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8년 학술심포지움 "한국적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 분석-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중심으로-".
- 최한기 저, 손병욱 옮김 (1994). 氣學. 여강출판사.
- ted J. 캠척, 김영훈 옮김 (1983). 벽안의 의사가 본 동양의학. 가서원.
-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997). 나이팅게일의 간호론-참 간호와 그릇된 간호-. 현문사.
- 하야시 하지메 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철학분과 동의학연구소 역 (1996). 동양의학은 서양의학을 뒤엎을 것인가. 보광재.
- 하영수 외 (1998). 한국적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개념분석-간호-.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1998년 학술심포지움 "한국적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 분석-인간, 환경, 건강, 간호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사상회 편 (1994). 철학대사전. 동녘.
- 허일웅 (1992). 도인수행이 혈장  $\beta$ -endorphin, ACTH, Cortisol, Epinephrine, Norepinephrine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화정 외 (1998). 한국의 기수련이 자연살해세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Development of Korean Nursing Intervention II "Alternative Therapy"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1998. 12. 10-11, Korean Academy of Nursing.
- 홍원식 (1972). 황제내경 소문해석. 고문사.

-Abstract-

## Philosophic Investigation of the 'Ghi(氣)' Phenomena

Lee, Hyun Ju\*

When recognition of the Ghi(氣) which exist in all things, is changed on the aspects of the science of nursing, the view of health and nursing will be more efficient and can be developed as the proper concept for Korean cultu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ich philosophical basis of the will be applicable to nursing and how to it has to be developed. Therefore I can for the research of the Ghi phenomena to attain the Thoughts of philosophy that is appropriate to expound those phenomena. And I attempt to induct "the fusion of horizons" to unify the view of the world between Korea and the West.

The Ghi is very energetic and omnipresent among the universe, Nature, and the human being. So it can organize all the primary elements of mental and physical function of human as like life, mind, breath, feeling, energy, etc. A general concept of the Ghi is described as follows ; ① The Ghi is the origin and essence to organize the universe, Nature, and the human being. ② It is the perpetually movable thing. ③ And there are continuous transmission between the Ghi of the universe and the human through body, mind, and soul.

For review on the philosophic basis of the Ghi, I studied out the identity of the doctrine of Li and Ch'i(理氣論) in the field of philosophy of Korea and the West. In Korea, the concept of the Vigor is based on Ch'i monism(기일원론) and Li Ch'i dualism (이기이원론) of Yul-gok Lee's, Toi-kye Lee's, Hwa-dam's, and/or Hekang's. These are indispensable for the view of the world of Korea as Metaphysical ideology, Concrete science, Materialism, Ontology, and Epistemology. From the viewpoint of the philosophy of the West, the doctrine of Li and

Ch'i(이기론) of Korea is identical with the doctrine of Li and Ch'i(이기론) of Joo-ja, Idea of Plato, Metaphysics of Aristotle, World Spirit(Weltgeist) of Hegel, and Existentialism of Heidegger.

In the nursing theory of the West, some of them referred to the Ghi as like Energy field theory of Rogers and Energy exchange of Neuman. Though there are different in terminology, "energy" and the "Ghi" are induced comparable therapeutic action between the human and the environments. With the nursing theory of Korea, I have made an attempt to compare the Ghi with metaparadigm of nursing—the human being, the environment, the health, and the nursing. For the most part, the alternative therapy is resonable to the frame of the nursing theory of Korea. It is easy to apply alternative therapy on the every spot of nursing. So this therapy could be a kind of forms as nursing therapy in the nursing centers where take the duties of supporting in local societies. In result,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will be activated by the nurse who puts up with the major parts. It is available to apply this therapy to palliation of pain, insomnia of infant, Sanhujori(산후조리), pain of menstruation, arthritis. And the alternative therapy makes it possible to propose the nursing model which represent originality, tradition, and history of the nursing of Korea.

Additionally, in the field of the nursing, it is indispensable to choose a suitable methodology which is considered whether it is matched with a theory of philosophy in the boundary and object of the research. Because there are many way to get the knowledge of nursing related to the Ghi.

In the science of nursing, context of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frame are required to understand the person who need to take care of(nursing client). But the value systems of the West and the East are distinctive each other as well as the behavior of health persuance. Therefore it is the basic research data of great worth to review philosophical the Ghi phenomena which is well known to Korean.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